

# 사직단[社稷壇]

##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

1395년(태조 4) ~ 미상



### 1 개요

사직단은 토지의 신(神)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다. 토지와 곡식은 국가의 기반과 민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직단은 전근대사회 왕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두는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사직단을 경복궁 서쪽 인달방(仁達坊)에 건설하였다. 이후 사직단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훼손되었다가 광해군 대에 수리되었지만, 1922년 일제가 부속 시설을 철거하고 사직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능을 상실하였다. 현재의 사직단은 1988년 문헌 고증을 토대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며, 사적 제121호로 지정되었다.

### 2 태조, 사직단을 건설하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태조 3) 10월 25일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관련사료 일주일 뒤인 11월 2일 태조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서운관(書雲觀)의 서리들을 인솔하고, 직접 종묘와 사직단의 터를 살펴 정하였다. 관련사료 이때 사직단은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왼쪽에 종묘, 오

른쪽에 사직을 두는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 서쪽 인달방에 터를 잡았다. 사직단의 공사는 1395년(태조 4) 1월 29일 시작하여 [관련사료](#) 한 달간의 공역을 거친 후 2월 27일 완성되었다. 이날 태조는 직접 사직단을 시찰하였다. [관련사료](#)

사직단의 경우 사단(社壇)은 동쪽에 쌓아 국사신(國社神)을 북향에, 후토신(后土神)의 신위를 동향에 모셨다. 일명 국사단(國社壇) 또는 대사단(大社壇)이라 하였다. 직단(稷壇)은 서쪽에 쌓고 국직신(國稷神)을 북향으로, 후직신(后稷神)의 신위를 동향으로 봉안하였는데, 국직단(國稷壇), 대직단(大稷壇)이라고도 하였다. 사직단을 국사단, 국직단이라고 부른 이유는 각 지방 군현에도 이를 두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지방의 사직단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사직단을 조성하여 제사를 지낸 유래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고구려 고국양왕(故國壤王) 8년(391)에 사직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관련사료](#) 신라 선덕왕(宣德王) 대에도 단을 쌓아 사직신을 모시고 있어 [관련사료](#) 삼국시대 사직단의 제도가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 3 사직단을 재정비하다

고려시대의 사직예제를 그대로 답습한 조선은 태종 대 사직단을 재정비하였다. 먼저 1406년(태종 6) 태종은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지방 각 군현에도 모두 사직단을 세워 봄, 가을에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관련사료](#) 1414년(태종 14)에는 예조에서 건의한 대로 송의 『오례신의(五禮新義)』에 근거해서 사직단의 토담 밖으로 넓게 외장을 쌓아서 그 안에 의장(儀仗)과 금위병(禁衛兵) 등이 배열할 수 있게 하였다. [관련사료](#)

세종 대에는 사직의 위패 설치, 단유(壇壝) 제작 문제로 대신 간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 이래로 사용했던 ‘태사지신(太社之神)’, ‘태직지신(太稷之神)’의 사직신의 칭호를 제후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사지신(國社之神)’, ‘국직지신(國稷之神)’으로 각각 바꾸었다. [관련사료](#) 사직단의 크기 도 고려시대의 제도에 따라 한 변이 50척이었던 것을 제후국의 사직은 천자국의 절반이라는 원칙하에 주척(周尺) 25척으로 단의 너비를 정하였다. 그러나 단상(壇上)이 좁아 찬기(饌器)를 들일 수가 없으므로, 영조척(營造尺) 25척으로 재는 자를 달리하여 크기를 약간 확장시켰다. [관련사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따라 사직단의 규모를 살펴보면 사직단의 사단과 직단은 각각 사방이 2장(丈) 5척(尺)이고 높이는 3척이다. 사방으로는 3층의 계단이 있다. 사직단의 단 위에는 방향에 따라 정중앙에는 황색의 흙을, 동쪽에는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등 오방오색(五方五色)의 흙을 깔았다. 또한 사단의 남쪽 계단 위에 길이가 2척 5촌(寸)인 석주(石主)가 있으며, 사직단 둘레에 유(壝)라고 하는 울타리를 둘렀고 여기에 사방으로 홍살문을 두었다. [관련사료](#)

이처럼 사직단은 1395년(태조 4) 축조된 이후 여러 차례 보수, 정비되었다. 태종은 사직단의 경역을 남서북 산등성이까지 넓혔으며, 세종 대에는 사직단의 담을 수리하였다. 연산군 대에는 담장이 얇거나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사직단은 폐허가 되었다가 광해군 대에 다시 복구되었다.

1897년에는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사직단은 태사단(太社壇)과 태직단(太稷壇)으로 높여졌고 위패도 이와 상응하게 고쳐서 모시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1922년 일제는 사직단을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1932년에는 사직단 북쪽 500여 평이 매동국민학교 부지로 들어가는 등 많은 훼손이 있었다. 이후 1940년 『경성시가지계획공원 제35호』에 따라 사직단 일대는 정식으로 도시공원이 되었다. 이러한 사직단은 1970년 사직공원 조경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 4 사직단의 제사

토지와 곡식은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 자체가 지배적인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토지신과 곡물신에 대한 숭배는 이미 고대부터 중시되어 국가 제사로 정립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사직단에서의 제사 의식은 백성의 생활 기반인 농경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최고의 제사인 대사(大祀)로 행해졌다. 제사는 1년에 세 번 행해졌다. 한 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 정월 상순 신일(辛日)에 지내는 기곡제(祈穀祭), 2월과 8월의 상순 무일(戊日)에 행하는 중삭(中朔), 동지 뒤 셋째 술일(戌日)인 납일(臘日)에 지내는 납향(臘享)이 있었다.

그러나 각 군현의 지방 사직단에서는 해마다 2월과 8월에 거행할 뿐 납일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사직단 또한 사단과 직단이 병렬적으로 위치한 것이 아닌 하나의 단에 사단과 직단을 함께 모셨고, 후토신과 후직신은 배향하지 않았다.

사직단의 제사의식은 종묘제와 비교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왕의 친제 의식을 비롯해 섭제(攝祭, 제사를 대신 지내는 일)와 기고(祈告)의식이 마련되었다. 조선 초기 태조대부터 성종 대까지 국왕이 사직제를 친히 지낸 것은 세 차례에 불과하였다. 그 가운데 성종이 두 차례 친히 제사를 지냈으며, 나머지는 모두 신하들이 대신 거행하는 섭제였다. 이후 현종이 한재로 인해 친히 사직단에 제사를 지냈으며, 숙종 대에 이르러서는 사직단에서 기곡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기우제와 기곡제 뿐 아니라 고려시대 이후로 외란(外亂)이 일어나면 국토의 보전을 따로 사직단에서 빌기도 했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비변사의 건의에 따라 하늘과 땅의 신령에게 천우신조(天佑神助)가 있기를 사직단에서 기원하였다. 이 같은 사직신에게 드리던 제사는 1908년 이후 폐지되었다.

## 5 사직단 대문

사직단의 대문(정문)은 사직단 바깥 담과 연결된 신문(神門)이다. 태조대 사직단이 건설되었을 때 함께 조성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이후 복원되었으나 1720년(숙종 46) 큰바람이 불어 사직단의 신문 3칸이 넘어져 부서졌고 주춧돌도 모두 뿔뿔히 넘어지기도 했다. [관련사료](#)

이러한 사직단 대문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단층 맞배지붕이다. 평면으로 보면 정문의 가운데 칸이 좌우 칸보다 간살이 넓다. 공포(拱包)는 초익공(初翼工) 계통에 속하나 외목도리(外目道里)가

있다. 현재 사직단 대문은 1962년 앞길을 확장하는 공사를 할 때 원래의 위치보다 14m 안쪽으로 당겨졌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77호로 지정되었다.

## 6 사직단의 관리 아문, 사직서(社稷署)

조선시대에는 사직단의 관리와 청소를 위해 사직서를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사직서는 종5품 아문으로, 시원임대신이 겸임하는 도제조(都提調) 1인, 정2품 관원이 겸임하는 제조 1인, 영(令, 종5품) 1인, 참봉(參奉, 종9품) 2인을 두었다. 하지만 사직서의 관원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직장(直長) 1인과 봉사(奉事) 1인이 신설되고 참봉이 폐지되는 등 변동이 있었다.

사직서에 입직하는 관원은 5일마다 사직단과 흙담을 관리했다. 사직의 뒤쪽 담장 안은 사직서의 종에게, 담장 바깥은 담장 밑에 사는 주민에게 맡겼다. 인가가 없는 곳은 경계하여 지키는 군사 4명을 두어서 번갈아 지키게 하였다. 만약 기와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곳이 있으면 관리를 맡은 주민과 군사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징수해서 보수하게 하였다. [관련사료](#) 매년 정월과 7월에는 호조, 예조, 공조의 낭관(郎官)이 사직단 및 흙담을 살폈다. 이때 사직단의 받침돌이 무너졌거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사직서의 제조가 살펴본 후 예조에 보고하였다. [관련사료](#)